



불법 전기충전기, 유통현장을 가다!

글_편집실

“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충전기는 감전, 화재 등의 재산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”

*** 철저한 사전 조사 후 현장 방문**

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전기충전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1일 전기충전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.

2인 1개조로 편성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조사팀은 사전 데이터베이스 조사 후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했다.



▲ 현장출동하고 있는 조사원들

현장방문 전 서울시청 담당자와 오늘 일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후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였다. 불법제품 조사의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처음 방문한 곳은 A업체로 현장을 방문할 당시 다양한 전기충전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며, 조사원들은 판매중인 전기충전기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조사하였다.



▲ 해당지역 공무원과 사전 조사협의를 하고있다

A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불법 전기충전기는 현재 현장에 없었으며, 판매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후 지자체를 통해 수거 또는 파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. 또한 현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, 안전인증(KC)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적발하고 인증번호를 해당 판매처에 팩스로 의뢰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조회하여 안전인

증 취득여부를 확인하였다. 해당 제품은 안전인증은 취득하였으나 인증미표시를 한 경우로 이에 대한 조치와 개선을 해당 제조자에게 요청하였으며, 판매 업체에게는 안전인증 확인 방법(www.safetykorea.kr, 각 해당 인증기관 조회)을 교육시킨 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문제에 대한 재발을 막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.

* 현장계도를 우선으로한 조사실시

오늘 불법조사 현장점검 대상지역은 서울시 중구 세운상가 일대로 불법 전기충전기가 제조·판매가 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실태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.



▲ 제품인증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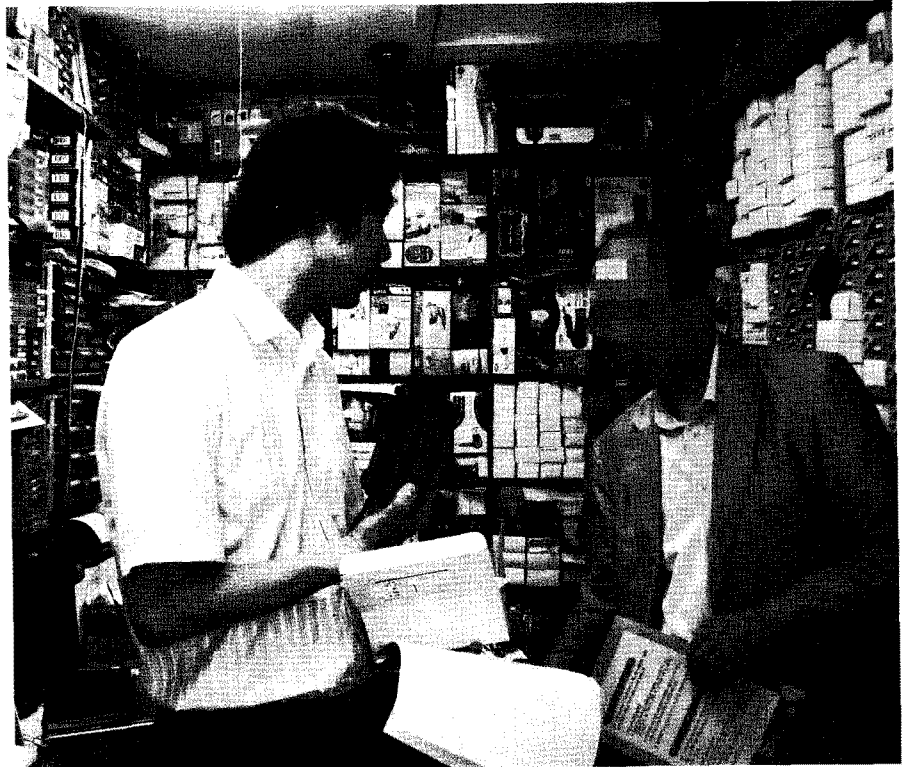
현장에서 적발된 불법·불량 제품들은 현장 조사원이 자세 히 사진을 촬영 하여 기록으로 남겨 추후 분쟁 의 소지가 있을 시 자료로 활용하고, 불법제품의 패턴을 파악하는 통계자료로 분석하여 불법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.



▲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

* 불법제품 적발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후 조치

두 번째 방문한 업체는 같은 지역의 B업체로 이 업체 또한 불법 전기충전기를 판매한다는 민원인의 제보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, 해당제품의 매장판매를 확인하고 불법제품 판매 확인한 후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.



▲ 매장에서 불법제품을 적발하여 설명하고 있다

불법 충전기 조사에 대해 현장에 동행했던 조사원은 “아직도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전기충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향후 불

법 전기충전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법제품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기충전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”고 말하며, “판매자의 경우 해당 제품이 불법제품인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꾸준한 제도 홍보로 불법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.”라며, 지속적인 불법제품 단속과 더불어 제도의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.